

소제목 >>> 누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1)

오늘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2)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요일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3)

**(마22:37-40)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31절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강령'은 '달려있다', '매달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계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밑에 모든 명령이 다 달려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째 계명도 나오고 여기에서 나머지 모든 명령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하여'는 '홀로스'라는 말인데 '온', '모든', '전체'를 뜻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나의 전체 힘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4)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을 더 사랑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하고, 내가 사는 것이 더 급하고, 내 일을 더 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나머지가 다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음 받은 존재인 피조물은 창조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홍수나 여러 재난을

당해 죽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 살릴 능력이 있다면 중환자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5)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하늘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은혜’는 ‘헤세드’란 말로 ‘친절’, ‘인자’,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무 급해서 아무리 힘쓰다 해도 이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도, 내 범사가 잘되는 것도, 내가 강건한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고, 공중의 새도, 풀 한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6)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정신없이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 상태야’ 라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혹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좋은 나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암송 및 묵상 말씀 📖 📖 “ 출애굽기 20 : 6 ”**

◆ 적용

1.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계명들이 매달려 있기에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